

만청(晩淸) 문인 황작자(黃爵滋)와 조선 연행사*

김홍매**

1. 서론
2. 황작자의 정치 행보와 조선 사신의 문견별단(聞見別單)
3. 황작자와 조선 문인의 묵연(墨緣)
4. 결론

<국문초록>

황작자(黃爵滋, 1793~1853)는 중국 청대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문학가이다. 황작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아편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강직한 성품으로 대담하게 간언을 하여 당시 중국에서 큰 명성을 얻었다. 황작자는 또한 벼를 사귀기를 좋아하여 조선 문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적지 않은 조선의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조선의 사신들도 황작자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 1834년부터 1846년 사이에 청나라를 방문했던 조선의 사행단이 돌아와서 올린 <문견별단(聞見別單)>은 황작자의 정치적 행보와 조정의 태도, 그의 조우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황작자의 행적에 대한 조선 사신의 보고는 주로 그가 청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을 주장한 일 및 한인과 만인의 대우 문제 등을 다루고 있고 황작자의 금연 주장이나 아편전쟁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황작자와 교류했던 조선의 문인들은 상당히 많은데 본고에서는 주로

* 본 논문은 '華南師範大學 高水平大學建設 프로젝트(심사번호 16WW021)'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중국 華南師範大學校 外國語言文化學院 강사

1835년에 동지부사로 중국에 갔던 고위급 관료 조두순(趙斗淳)을 중심으로 황작자와 19세기 조선 문인들의 교류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황작자는 조선의 문인들에게 자신의 문집을 보여주고 품평을 청하는가 하면 <궐리전비답본(闕里全碑搨本)> 같은 자료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시회를 열고 함께 시를 수창하면서 우정을 쌓기도 하였다. 조선의 문인들과 황작자는 주로 문화적인 면에서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문인의 면모에 주목하였다.

핵심어: 황작자, 19세기, 『문견별단』, 조두순.

1. 서론

황작자(黃爵滋, 1793~1853)는 자가 덕성(德成)이고 호가 수재(樹齋)이며, 청대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문학가로, 임칙서(林則徐), 등정정(鄧廷楨)과 더불어 금연(禁煙) 운동을 진행한 명신(名臣)이기도 하다. 황작자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청사고(淸史稿)』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황작자는 시로 유명하였고 벗을 사귀는 것을 좋아하였다. 매일 밤 문을 닫고 상소문을 기초하였고 낮에는 말을 타고 나와 친한 명사(名士)들을 두루 만나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지었는데 의기(意氣)가 매우 호탕하였다. 아편을 금지할 것을 호소하고 시종 싸울 것을 주장하여 일세의 사람들이 청류(淸流)의 대표로 생각하였다. 그가 쓴 상소문과 시문집에 세간에 전한다.¹⁾

이 기록은 정치가와 문인으로서의 황작자의 두 면모를 서술한 것이다. 황작자는 여러 번 상소를 올려 당시 청나라의 부패한 정치를 폭로하고 개혁할 것을 주장하여 직언을 서슴지 않는 문인으로 평가되었고 높은 명성을 얻었다. 아편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주장하였

1) 趙爾巽, 『淸史稿』 권378 『列傳』 165, “爵滋以詩名, 喜交遊. 每夜閉閣草奏. 日騎出, 遍視諸故人名士, 飲酒賦詩. 意氣豪甚. 及倡義禁煙, 始終主戰, 一時以爲淸流眉目. 所著奏議, 詩文集行於世.”

고 실제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내기도 하였다. 그의 정치적 주장과 외교 및 군사 면에서의 행적은 중국의 근대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청사고』에서는 황작자가 벼슬 사귀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는 조선인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였고 조선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인이기도 하다. 그가 조선 문인들과 교류하였던 시기는 주로 북경에서 예부시랑(禮部侍郎)과 홍려시경(鴻臚寺卿)을 지냈던 때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그는 조두순, 조병현(趙秉鉉) 등 관리들과 이상적 등 역관들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조선의 문인들과 교류하였으며 일부 조선 문인들과 서신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서장관과 수역이 조정에 올린 <문견별단(聞見別單)>에도 황작자의 이름과 정치적 행적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사신들도 황작자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황작자와 19세기 조선 문인들의 교류는 19세기 한중교류사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계에서 황작자와 조선인들의 교류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다만 이상적과 중국인의 교류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²⁾ 사실 청나라 문인 중에서 황작자처럼 중국의 근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조선 사신의 <문견별단>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황작자의 생애와 정치적 활동과 결부하여 조선 사신들의 <문견별단>을 살피고 그들이 황작자의 어떤 행보에 주목하였는지 고찰하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조선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황작자는 또한 ‘강정아집(江亭雅集)’을 주도했던 중요한 문인이기도 하다. 황작자를 위시한 문인들은 북경 선남(宣南)에 위치한 도연정(陶然亭)에서 16차나 모임을 가졌으며 이 모임은 1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황작자의 주변에는 매증량(梅曾亮), 관동(管同), 마원(馬沅), 공자진(龔自珍), 위원(魏源), 왕희손(汪喜孫), 단목국호(端木國瑚), 요영(姚瑩), 탕봉(湯鵬), 장

2) 이상적과 황작자의 교류에 대해서는 李春姬, 溫兆海 등의 논문에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이춘희, 『藕船 李尙迪과 晩淸 文人의 文學交流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춘희, 『(19世紀) 韓·中 文學交流: 李尙迪을 중심으로』, 새문사, 2009; 溫兆海, 『朝鮮詩人李尙迪與清代“江亭文人”雅集』, 延邊教育學院學報, 2012年 10月, 第26卷 第5期.

우정(臧紆靑) 등 상당한 수의 문인들이 결집되어 있었다. 이들 중 몇몇 문인들은 조선 문인들과도 교류가 있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황작자와 조선 문인들의 문화적 교류를 고찰하면 19세기 한중문화교류의 한 측면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황작자의 생애, 정치적 행보와 결부하여 조선 사신들의 <문견별단>을 살피고, 19세기 조선의 고위급 관료인 조두순을 중심으로 황작자와 조선 문인의 문화적 교류의 양상과 그 의미를 짚어보려고 한다.

2. 황작자의 정치 행보와 조선 사신의 문견별단(聞見別單)

황작자는 1793년에 강서성(江西省) 의황현(宜黃縣) 봉강진(鳳崗鎭)에서 태어났다. 21세인 1813년에 군름생(郡廩生)의 신분으로 과시(科試)에 응하여 발공(拔貢)이 되었고 22세 되던 1814년에는 북경에 들어가 조고(朝考)에 응하여 2등으로 합격하여 유학교유(儒學敎諭)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노계현(瀘溪縣, 지금의 資溪縣) 유학훈도(儒學訓導)로 부임하였다. 그 후 3, 4년 동안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명한 자들을 뽑아 공부를 시키고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당지의 독서 풍기를 진작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4세 때부터 학문을 독려하는 관리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황작자가 정식으로 북경의 관리로 부임한 것은 34세가 되던 1826년이다. 황작자는 27세가 되던 1819년에 향시(鄉試)에 참여하여 4등으로 거인(舉人)이 되었고 31세가 되던 1823년에 회시(會試)에서 제27등으로 진사가 되었으며 그해 조고(朝考)를 통해 한림원에 들어갔다. 겨울에 조부가 별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렀고 1826년에 산관(散館)에서 편수(編修) 직을 받고 북경으로 가 부임하였다. 그 이후 국사관(國史館) 협수(協修), 무영전(武英殿) 찬수(纂修), 총찬관(總纂官) 등의 직을 맡았으며 북경에서 애창(艾暢), 공헌이(孔憲彝), 임칙서(林則徐) 등의 유명한 인물들과 교류하였고 강정(江亭), 즉 도연정(陶然亭)에서 시회를 열고 시우들과 함께 시를 지었다.

황작자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개혁 주장을 편 것은 40세가 되던 1832년

에 복건도(福建道)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임명된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황작자는 당시 호부(戶部)의 은 재고와 장부에 많은 병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엄격히 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를 참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1833년에도 여전히 은 문제에 주목하며 중국의 은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아편 금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1835년에 올린 <경진육사소(敬陳六事疏)>에서는 정식으로 아편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³⁾

조선에서 황작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1834년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1834년 2월에 출발한 사은사(謝恩使) 일행이 귀국한 뒤 바친 <문견별단>에 황작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당시 사은사의 정사는 홍경모(洪敬謨)였고 부사는 이광정(李光正), 서장관은 김정집(金鼎集)이었으며 수역은 김상순(金相淳)이었다. 서장관 김정집의 문견별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황제께서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금사중(給事中) 황작자의 상소를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주(州)와 현(縣)의 곳간에는 늘 장부만 있고 곡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상관이 조사, 확인을 하게 되면 이쪽저쪽 곡식을 옮겨서 간신히 미봉책으로 삼는다. 일이 지난 후에는 방매(放賣)하거나 혹은 돈으로 바꾸어 그 이자를 취하거나 혹은 부유한 백성들에게 억지로 빌려 주고 이자를 덧붙여서 징수하며, 곰팡이가 났다고 거짓으로 고하고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한다. 흉년을 당하여 관아의 곡식을 싸게 판매하여 백성을 구휼할 때면 백성의 숫자를 거짓으로 늘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한다. 만약 상주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아의 양식이 줄어드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도모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하다. 이미 죄를 저지른 다음에 벌하기 보다는 그 전에 금하는 것이 낫다. 각 성(省)과 부(府), 주(州)와 현(縣)에서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앞서 사람의 전적을 밟지 말라. 만약 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⁴⁾

3) 황작자의 생애는 黃細嘉, 『黃爵滋系年要錄』, 撫州師專學報, 1995년 제4기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4) 『일성록』 순조 34년(음력 1834년) 7월 7일, <召見回還謝恩使于興政堂. 上使洪敬謨, 副使李光正, 書狀金鼎集. 書狀官金鼎集, 首譯金相淳進聞見別單>, “皇帝下諭曰, 今見給事中黃爵滋所奏, 則州縣倉儲穀數往往有簿無穀. 若遇上司之查實, 則搬東墊西, 艱辛彌縫. 事過之後則或放賣

1834년 3월에 황작자는 여러 주(州)와 현(縣)의 곡식 창고가 유명무실한 적폐를 없애야 한다는 상소를 올려 명을 받고 계찰단필고(稽察緞疋庫)를 겸하게 되었다. 4월에는 또 <종핵명실소(綜核名實疏)>를 올려 국사에 대한 견해와 주장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교육, 안전, 수리(水利), 창고, 군사, 해방(海防), 인재 등 여러 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종핵명실소>의 영향력은 매우 컸는데 황작자는 이 글로 인해 도광(道光) 황제의 칭찬을 받았고 청나라의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김정집의 문건별단은 그해 3월과 4월에 황작자가 올린 상소문과 그에 대한 황제의 반응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집이 황작자의 상소문의 내용에 주목한 것은 조선 역시 환곡 문란이 농민봉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환곡의 목적은 농민을 구휼하는 것이었으나 후에 지방 관아의 중요한 재정원으로 편입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겼고 관리들이 농간을 부림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은 심각하게 가중화되었다. 환곡은 강제 대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많았을 뿐 아니라 관리들의 농간 역시 중국과 다를 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므로 김정집의 보고는 중국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참조해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1835년의 회환사(回還使) 역시 황작자를 언급하고 있다. 당시 정사는 김로(金鏞), 부사는 이연순(李彦淳), 서장관은 정재형(鄭在綱)이었으며 수역은 김상순(金相淳)이었다. 서장관의 문건별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홍려시경(鴻臚寺卿) 황작자가 시폐(時弊)를 열거하면서 변법(變法)을 할 것을 청하였다. 황제는 그 상소문이 충성심에서 나온 좋은 것이기는 하나 대저 고금을 살펴보면 난인(亂人)이 있을 뿐 난법(亂法)은 없었으며 나라에서 사람을 기용하는 행정 규제(規制)가 이미 완비되었으므로 신하와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받들

作錢偷其利息，或勒貸富民加數徵捧，或假稱霉變低價斥賣。如遇平糶賑濟之時，則虛增戶口，專事染指云。果如所奏，公貸之減縮姑舍，哀此下民何以聊生。罪之於已著之後，不若禁之於未然之前。各省府州縣實心奉公，無蹈前習。若不稱旨，難免三尺之誅。”

5)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9, 237~315면.

어 행하면서 주야로 힘쓴다면 기강이 바로 서고 이치(吏治)가 엄숙하고 맑아질 것이며 민풍(民風)은 자연히 온화해 질 것이니 어찌 어지럽게 법을 고칠 수 있겠냐고 하셨다.

황제께서 유지(諭旨)를 내려 말씀하셨다. 간쟁(諫諍)하는 신하는 조정의 귀와 눈이 되는 관리이다. 정치는 모두 이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 책임이 어찌 중하고 크지 않겠는가? 근래에 풍찬훈(馮贊勳), 김응린(金應麟), 황작자(黃爵滋), 증망안(曾望顔) 등 여러 사람은 감히 숨기지 않고 간언을 하며 청렴하고 일을 잘 하므로 간관(諫官)으로 뽑아 간언하는 신하들을 크게 권장하고 충언을 하는 길을 크게 열고자 한다. 해당 신하들은 짐의 뜻을 우러러 헤아려 일이 있을 때마다 대담하게 간언을 해야 할 것이다. 일체 비방과 칭찬, 영예와 치욕을 모두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국가의 대사와 백성의 삶에 실로 도움이 될 것이다. 혹시라도 시작만 있고 끝을 맺지 못할까 걱정되어 이렇게 포유를 하는 바이니 더욱 힘을 쏟아 노력하여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⁶⁾

정재형이 이 문건별단을 올린 시간은 1835년 12월 20일이다. 황작자는 동년 8월에 홍려시경에 임명되었으니 이 문건별단의 내용은 그가 1835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올린 상소문과 조정의 반응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문건별단에서는 황작자가 변법을 할 것을 청하였다는 것과 황제가 변법을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담하게 간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1834년의 문건별단에서 보고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인다. 즉 1834년에 이어 계속해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황작자의 주장과 개혁 주장, 및 그 실행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그해 황작자는 개혁주장 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 대사를 논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황작자는 1835년 9월에 <경진육사소(敬陳六事疏)>를 올려

6) 『일성록』 현종 1년(음력 1835년 12월 20일), <召見回還三使臣于熙政堂. 正使金鏞, 副使李彦淳, 書狀官鄭在綱, 書狀官鄭在綱, 首譯金相淳進聞見別單>, “鴻臚寺卿黃爵滋條陳時弊, 又請變法. 皇帝答, 以爲覽此所奏, 非不忠良. 而大抵歷觀古今, 有亂人而無亂法. 且國家用人, 行政規制大備. 大小臣民果能一心奉行, 夙夜匪懈, 將見紀綱肅清吏治, 民風自可時雍. 豈可紛更成法. 一皇帝降諭旨曰, “諫諍之臣卽朝廷耳目之官. 政治皆由於此. 其責任豈不重大哉? 近馮贊勳, 金應麟, 黃爵滋, 曾望顔等數人敢言無隱, 清白曉事, 故擇任諫官. 風勵言臣, 廣開忠諫之路. 該臣等固宜仰體朕意, 隨事敢言. 一切毀譽榮辱之心, 俱不存諸中. 其于國計民生, 實有裨益. 而或恐有始無終, 如是布諭. 益加勉勵, 毋負朕意.”

천재(天災), 인재(人才), 군사, 치안, 경위(京衛), 해방(海防) 등 사안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중 여섯 번째가 아편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황작자는 아편의 반입이 청나라의 경제에 큰 위협이 됨을 지적하고 당시 광주의 아편 밀수입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아편의 저장, 판매와 흡입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아편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는데 조정에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였다.

1836년에 태상사소경(太常寺少卿) 허내제(許乃濟)가 <아편을 강하게 금지할수록 그 유평가 더 크므로 변통하여 일을 처리할 것을 청하는 글(鴉片例禁愈嚴流弊愈大亟請變通辦理折)>을 올려 아편 금지를 느슨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고 얼마 뒤에 주준(朱嶠), 허구(許球), 원옥린(袁玉麟) 등이 반박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윤4월에 황작자는 <밀 빠진 독을 엄하게 막아서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할 것에 관한 상주서(請嚴塞漏卮以培國本折)>를 올려 아편을 피우는 자들을 엄중하게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황작자는 아편을 피우는 자들에게 1년 기한을 주어 아편을 끊도록 하고 끊지 못하면 백성들은 사형에 처하며 관리들은 두 배로 처벌을 하고 자손들이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상소문은 전국에 아편을 금지할 것에 대한 큰 여론을 일으켜 결국 도광황제로 하여금 아편을 금지할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결국 1838년 9월에 허내제는 6품으로 강등되었고 그해 11월에 조정에서는 호광총독(湖廣總督) 임칙서(林則徐)를 파견하여 아편을 금지하게 하였다. 임칙서는 11월 15일에 흠차대신(欽差大臣)으로 임명되었고 1839년 3월에 광저우(廣州)에 도착하여 정식으로 아편을 금지하는 업무에 착수하였다. 황작자는 금연 정책이 시행된 이후 좌부어사 기준조(祁寯藻)를 따라 복주(福州)에 가서 아편 금지 업무에 참여하였고 또 민절총독(閩浙總督) 등정정(鄧廷楨) 등과 해방(海防)을 계획하였으며 여러 편의 상소문을 올려 아편을 엄금하고 해군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해상 전역 대책을 올리는 등 금연 운동의 성공적인 진행과 해상 전역의 승리를 위한 방책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사신의 문견별단에서 황작자와 관련하여 금연정책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아편전쟁이 발생한 이후나 황작자가 적극 아편

전쟁에 관련한 대책을 모색한 일에 대한 기록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그 이후 사신의 문견별단에서 다시 황작자가 언급된 것은 1846년의 일이다. 1846년 서장관 심희순(沈熙淳)의 문견별단은 황작자, 김응린 등 한족 관리들을 언급하면서 한족과 만족 관리의 등용 문제를 논하고 있다.

1년 전에 (영국-저자) 오랑캐들의 일로 인해 한인(漢人)들이 무고를 당한 이후로 모두 가슴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한족 관리들 중 조금 명망이 있는 자들로 황작자(黃爵滋), 김응린(金應麟), 진경용(陳慶鏞), 소정괴(蘇廷魁) 같은 사람들은 모두 작은 일로 죄를 입어서 쫓겨나가거나 좌천을 당하였고 내쳐져서 등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한인들은 만인(滿人)들이 자신들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여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규칙에 의하면 한인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랑(侍郞)이나 상서(尙書)가 될 수 없으나 만인들은 제한이 없다고 하니 그 아량이 좁아 기상에 영향을 있을 것이 걱정됩니다.⁷⁾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뒤 청나라 조정에서 금연파(禁煙派), 주전파(主戰派)들을 대부분 좌천을 당하였다. 황작자는 아편전쟁이 끝나기 전인 4월에 조부의 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다음해 3월 호부(戶部)의 은고에 900여만 냥이 비는 일이 발생하였다. 황작자는 전임 어사와 함께 은고를 시찰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벼슬을 삭탈당하고 은을 배상하라는 명을 받았다. 황작자는 다음해 11월에야 은을 다 배상하고 육부원외랑(六部員外郎)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 산수를 유람하고 저술을 하는데 집중하였을 뿐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다시 요직에 등용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희순의 문견별단은 아편전쟁 이후에 한족 관리들이 대부분 내쳐졌고 한족들과 만족 관리에 대한 조정의 차별이 심해서 한족들이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다고 하였다. 황작자 등 한족 관리들이 아편전쟁 때문에 조정에서

7) 『일성록』, 현종 12년(음력 1846년) 7월 8일, <書狀官沈熙淳, 首譯邊種進聞見別單>, “一年前以■■夷事, 漢人被誣之後, 舉懷冤憤, 而漢官中稍有聞望者如黃爵滋, 金應麟, 陳慶鏞, 蘇廷魁等皆以微事被罪, 或竄或黜, 擯斥不用. 漢人疑以滿人之擠陷, 莫不佛鬱. 雖以官方言之, 漢人非以科目進, 則不得爲侍郞, 尙書. 滿人則不拘云. 其規模之不弘, 恐有欠於一家氣象.”

내쳐진 것을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초점을 국제 정세와 그 속에서의 중국의 상황이 아닌, 한족과 만족의 차별 및 처우에 두고 있어서 조선 사대부들의 전통적인 화이론적 시각에서 중국의 문제를 관찰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한인과 만인의 오래된 갈등과 차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그에 너무 주목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청나라의 국력이나 대외 문제 등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 다각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황작자와 조선 문인의 묵연(墨緣)

3.1. 조두순(趙斗淳)과의 교유

조선 문인들 중 황작자와 교유하고 친분을 맺은 사람은 적지 않은데 이들 중 조두순(趙斗淳, 1796~1870)은 조선 조정의 고위급 관료였기 때문에 그와 황작자의 교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조두순은 1835년 동지부사로 청나라로 갔을 때 황작자와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났고 상대방의 시에 차운하고 문집에 글을 써주는 등 꽤 깊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수재(樹齋) 황작자의 『수재시초(樹齋詩艸)』에 차운하다(次黃樹齋爵滋詩草韻)>라는 시의 서문에서 황작자와 만나게 된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홍려시에서 예를 익히는 날 수재(樹齋) 황작자(黃樹齋)를 만났다. 홍려시경의 신분으로 반열을 통솔하러 온 것이었다. 그에게 찾아가기로 약속하였다. 며칠 뒤 내가 찾아갔더니 『수재시초』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이미 입각(入刻)한 것이 4권이었다. 나더러 가지고 가서 솔직하게 품평을 해달라고 애써 청하였다. 내가 불민함을 이유로 사양하였더니 또 내 시고를 보여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였다. 돌아와서 길에서 지은 시들을 읽어보았더니 기휘(忌諱)하는 바에 저촉되는 것들이 많았으므로 『수재초』에 따라 매 권(卷)마다 시 한 수씩을 차운하여 돌려주었다. 수재는 강서(江西) 의황(宜黃) 사람이며, 문절(文節)의 후예다. 올해 44세이며, 원

래 급사중(給事中)이었는데 지금은 홍려경을 맡고 있다. 이는 매우 급속도로 발탁된 것이라고 한다.⁸⁾

조두순은 위 글의 끝에 황작자와 문묵교(文墨交)를 맺고 초이튿날에 애창(艾暢)이 머물고 있던 청운재(靑雲齋)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다 하였다.⁹⁾ 청운재의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황작자 외에 내각중서(內閣中書) 곽의소(郭儀霄, 호 羽可)와 거인(舉人)인 애창(艾暢, 호 至堂)¹⁰⁾, 진사인 강개(江開, 호 龍門), 형부주사(刑部主事) 양희(楊熙, 호 朗山) 등이 더 있었다. 이들은 청운재에서 모임을 가지고 운자를 나누어 시를 지었다. 조두순은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시를 하나씩 지어 주었는데 다음은 황작자에게 준 시이다.

赭腹惡散材	붉은 진흙이라 쓸모없는 나무에 부끄러워하며
雲霄側踈翼	구름 위에서 성긴 날개를 드리웠구나.
四溟雖云大	사해가 비록 크다고 하나
一勺猶堪測	국자 하나로도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있지.
晤言適性靈	얼굴 맞대고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하니
不以限方域	나라가 달라도 구애됨이 없네.
交臂幾相失	가까이 할 기회 잃을 뻔 했지만
證心斯有得	여기에서 마음을 인증하게 되었네.
肴核爲我陳	나를 위해 고기와 과일을 차려놓고
英彥容我識	뛰어난 선비들을 나에게 알게 하네.
二妙如玉雪	두 분 재주 똑같이 뛰어나고 지조가 맑은데
古家有程式	오래된 명문이라 법도가 있네.
君今富聲實	그대는 지금 명성과 실력을 다 갖춰
掉鞅雲路直	재능이 넉넉하니 앞길이 곧게 트였으리라.

8) 趙斗淳, 『心庵遺稿』 권3, <次黃樹齋爵滋詩草韻>, “鴻臚寺演禮日, 遇黃樹齋爵滋. 盖以寺卿來狎班也. 約與之過從. 後數日, 余往叩之. 出示其『樹齋詩』已入刻者四卷, 力求余袖往, 從直道加墨. 余謝不敏. 又請余稿甚勤. 歸闕途中所作, 往往有望罵忌諱者. 酒就『樹齋』, 每卷次一首以還之. 樹齋, 江西宜黃人, 文節之裔. 年今四十四. 由給事中, 現任鴻臚卿. 係超陞云.”

9) 趙斗淳, 『心庵遺稿』 권3, <次黃樹齋爵滋詩草韻>, “右冊冊冊冊冊冊冊至堂名暢, 與黃爵滋爲文墨交. 約以初二日, 對紱于艾之所寓靑雲齋.”

10) 애창은 조두순 외에 신위(申緯) 신석우(申錫愚, 1805~1865) 등 사람과도 교유가 있었다.

游宦無定所	벼슬살이에는 정해진 곳 없으니
會合終何極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幾日我言歸	며칠 뒤 내가 돌아간 뒤에는
天涯謾相憶	하늘 끝에서 헛되이 그리워하겠지.
祗有此苦心	그저 이 괴로운 마음만 있어
譬彼石不泐	저 돌처럼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¹¹⁾

첫 구의 ‘붉은 진흙’은 황작자를, ‘쓸모없는 나무’는 자신을 가리킨 것으로 황작자의 겸손함을 말한 것이다. ‘疎翼’은 ‘疏翼’로 쓰기도 하는데, 초명(焦明)이라는 새의 날개이다. 초명은 일명 ‘초붕(焦朋)’이라고도 하며 봉황새와 비슷한 새라고 한다. 장수절(張守節)이 『사기』에 붙인 「정의(正義)」에 초명은 “부리가 길고 날개가 성기며 꼬리는 둥글고 한가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는다(長喙, 疏翼, 員尾, 非幽閑不集.)”라고 하였으며 위(魏) 완적(阮籍) 「영회(詠懷)」 47에 “초명이 뜬 구름 위를 노닌다(焦明遊浮雲)”라고 하였다. 여기서 “구름 위에서 성긴 날개를 드리웠다”는 말은 그들이 ‘청운재’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이고 ‘성긴 날개’라고 한 것은 황작자가 초명과 같은 뛰어난 존재임을 찬양한 것이다. ‘二妙’는 ‘一臺二妙’에서 온 말인데 원래 같은 벼슬에 있는 두 사람의 재주가 똑같이 뛰어난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황작자와 그의 종형인 황작추(黃爵樞)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 사람은 모두 1813년에 발공(拔貢)에 뽑혀 의황(宜黃)의 ‘이황(二黃)’으로 불린 바 있다. 조두순은 이 시에서 황작자의 재주를 찬양하고 뜻이 맞는 벗을 사귀게 된 기쁨과 이별의 슬픔 등을 표현하였다. 나라가 달라도 뜻은 통하여 마음을 터놓고 벗을 사귄 수 있지만 한 번 헤어지면 다시 만남을 기약하기 어렵기에 이별 후에는 하늘 끝에서 헛되이 그리워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황작자는 조두순에게 먼저 호의를 표시하고 자신의 문집을 보여주면서 조두순의 글을 구하고 또 자신의 문집을 품평해 주기를 청하였다. 사실 당시 한중 문인들의 교류를 보면 대부분 조선의 문인들이 문집을 갖고 중국에 들어가 중국 문인들의 품평과 서문을 청하였는데 황작자처럼 먼저 문집

11) 趙斗淳, 『心庵遺稿』 권4, <靑雲齋赴黃樹齋小集. 以“雖無德與汝, 式歌且舞.”爲韻. 余得式字, 遂成五篇. 分屬會中諸人>

을 보여주면서 품평을 간곡히 청한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조두순은 황작자의 문집에 써 준 시에서 황작자의 시가 “산처럼 우뚝하고 환하게 빛이 난다(君詩巖巖更熊熊)”라고 하였고 황작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성을 환상 거품처럼 우습게 여기고 우정에 대해서는 목숨처럼 중요하게 본다(時名厭似泡漚幻, 友道看如性命同)”¹²⁾라고 하였는데 이는 『청사고』의 황작자에 대한 평가와 일치한다. 조두순이 특별히 명예와 우정에 대한 황작자의 태도를 언급한 것은 그가 이 두 가지 특징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즉 한중 문인의 교유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품과 우정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황작자는 또 조두순에게 자신이 시를 쓴 부채를 선물하였고 자신이 그린 <고송도(古松圖)>에 시를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음은 조두순이 황작자가 부채에 써준 시에 차운한 두 수의 시 중 두 번째 시이다.

五更鍾漏青綾被
海嶽奇游夢不阻
三韓方丈天下聞
名家友道饒縞紵
知君浩蕩桑蓬志
久儲雄詞氣吞吐
我慚星槎犯牛斗
未有博辯續揮塵。
東歸應問燕趙士
屈指吾將以君數
酒酣擊節立如山
慧照猶堪凌千古
判不魚游忘江湖
劇知雞鳴懷風雨
願言老大各努力
且取樽前傴僂舞

물시계 오경을 알리는데 푸른 비단 이불 덮고서
바다와 산악에서 기이한 유람을 하니 꿈에 막힌 것이 없구나.
삼한의 방장산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명가의 우정은 선물도 후하네.
그대가 호탕하여 천하를 장유할 뜻 있는 것 아니
오래 쌓은 웅장한 노래 기운을 토하는 구나.
성사(星槎)로 두우(斗牛)를 변한 것이 부끄러우니
웅변을 토하지 못해 담론을 잊지 못하였네.
조선으로 돌아가면 연경의 선비에 대해 물을 터인데
손가락 꼽는 사람들 중에 그대 이름 넣으리.
술에 거나하게 취해 무릎 치는 소리 산처럼 울리는데
밝은 지혜 오히려 천고의 인물을 넘을 만하네.
강호의 물고기처럼 서로를 잊지 않고
담울음소리를 들으면 비바람을 생각하듯이 하겠지.
늙을 때까지 각자 노력하기를 기억하며
술잔을 잡고 앞에서 너울너울 춤이나 춥시다.¹³⁾

12) 趙斗淳, 『心庵遺稿』 권4, <題黃樹齋詩集>.

13) 趙斗淳, 『心庵遺稿』 권4, <次黃樹齋寺卿>.

조두순은 첫 번째 시에서 황작자가 부채를 선물하고 시를 써 주었다고 하였다. “명가의 우정은 선물도 후하네”라는 말은 황작자에서 부채를 받은 것을 말한 것이다. ‘縞紵’는 벗 사이의 깊은 정이나 주고받는 선물을 말하는 데, 오(吳) 나라 계찰(季札)이 정(鄭) 나라 자산(子產)에게 호대(縞帶)를 주고, 자산은 그 보답으로 저의(紵衣)를 준 일에서 나온 말이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황작자가 천하를 장유할 뜻을 드러냈는데 조두순은 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조선을 유람하는 꿈을 꾸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두순은 자신이 조선으로 돌아가면 조선의 선비들이 중국 선비들에 대해 물을 것인데 그러면 마땅히 황작자를 몇 손가락 안에 꼽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지체가 친고의 인물을 넘을 만 하다고 하였다. 처음으로 황작자를 만났을 때와 비교해 보면 이미 상당히 황작자에게 경도되고 사이가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다. 또 헤어진 뒤에 서로를 잊지 말고 닭울음소리를 들으면 풍우를 그리워하듯이 서로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을 기약하였다. 강호의 물고기처럼 서로를 잊고 지낸다는 것은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고 ‘닭울음소리[雞鳴]’와 ‘풍우[風雨]’는 『시경』의 『정풍(鄭風)』 「풍우(風雨)」에 나오는 “비바람 소리 쓸쓸한데 닭울음소리 들려오네(風雨淒淒, 雞鳴啾啾)”에서 따온 것이다. 조두순의 시구는 ‘닭울음’이라는 어휘를 보면 ‘비바람’을 생각하듯이 늘 황작자라는 벗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호의 물고기’는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의 “생물이 말라 물고기들이 물에 있으면서, 입 안의 습기로써 서로 붙어 주고 거품으로 서로 적서 주는 것이 강호에서 서로 잊고 사는 것만 못하다(泉涸魚相與處於陸, 相煦以濕, 相濡以沫, 不如相忘於江湖)”에서 온 말로, 강호에서 안락한 삶은 사는 것을 말한 것이다. 뒤의 “늘을 때까지 각자 노력하기를 기약하며”라는 시구와 연결해 볼 때 ‘강호의 물고기’처럼 서로를 잊고 안락하게 지내지 않고 ‘비바람’ 속에서 ‘닭울음’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중국과 조선의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각자 노력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조두순은 황작자를 일반 문우(文友)를 넘어 뜻이 같은 벗으로까지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황작자 또한 조두순과의 우정을 중히 여기고 기념으로 삼을 수 있는 물

건을 남겨 훗날 추억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암유고(心庵遺稿)』 권4에는 황작자의 ‘고송도’에 써 주었던 절구 두 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에 이 절구를 쓰게 된 경위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황수제가 여산(廬山)을 유람하던 날 꿈에 노인이 고송도(古松圖)를 주었다. 돌아온 뒤에 그것을 생각하여 그렸는데 그림의 좌우에는 당시 명사들의 글씨가 많이 써어져 있었다. 또 나한테 당부하기를, “이는 앞으로 정을 붙일 물건이니 그대도 글귀를 써 주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절구 두 수를 써서 돌려주었다.¹⁴⁾

窓間一蟲大於輪	창가에 매단 이 하나 수레바퀴보다 크니
道妙從來寂漸眞	오묘한 도는 원래 조용히 진실에 가까워지는 법.
我向夢中還理夢	내가 꿈속을 향해서 다시 꿈을 정리하니
匡廬秀色已韜人	여산(廬山)의 아름다운 경치 이미 사람을 가려버렸네.

靈芝老朮遍蓬萊	봉래산에는 영지와 노술(老朮)이 가득하여
不獨寒松萬翠堆	푸른 솔만 만 겹으로 짝 찬 것이 아니지.
安得携君東渡去	어떻게 하면 그대를 데리고 동쪽 바다를 건너서
十洲親見好樓臺	십주의 좋은 누대를 직접 보게 할 수 있을까?

“창가에 매단 이 하나 수레바퀴보다 크니”라는 말은 『열자(列子)』 『탕문(湯問)』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창(紀昌)이 비위(飛衛)에게서 활쏘기를 배울 때 이 한 마리를 창문가에 매달아놓고 매일 보았는데 점점 크게 보이더니 3년이 지나자 수레바퀴처럼 크게 보였다고 한다. 첫 시는 황작자가 꿈에 ‘고송도’를 받은 일을 오묘한 도에 의해 생긴 일로 해석하고 꿈속의 정경을 상상한 것이다. 두 번째 시는 조선의 명산인 봉래산, 즉 지리산을 자랑하면서 황작자를 데리고 조선으로 가 좋은 경치를 보여주고 싶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황작자가 여산을 유람하던 날 꿈에 ‘고송도’를 받은 일을 오묘한 도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일로 해석하고 여산 유람의 운치를 찬양하는 한편 조선의 명승을 자랑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14) 趙斗淳, 『心庵遺稿』 권4, <黃樹齋遊廬山日, 夢有老人授以古松圖. 既歸, 遂因想而繪之. 繪左右多一時名雋筆. 乃又屬余曰, “此未來情根所在也. 子其有以題之.” 遂以兩絕句書而還之>

황작자는 또 조두순이 조선으로 돌아가기 전에 강정(江亭)에서 시를 지어 전별을 하였는데 시에서는 천지의 광대함과 조선과 중국에 갈라져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토로하였다.¹⁵⁾

두 사람의 만남은 조두순이 사행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황작자의 시의 운을 사용하여 시를 지었는데¹⁶⁾ 이는 황작자와 교류하고 시를 지은 일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3.2. 이유원(李裕元)과 궤리전비탑본(關里全碑搨本)

황작자는 다른 조선 문인들에게도 매우 호의적이었는데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1837년에 자신의 외삼촌이 연경에 갔을 때 황작자가 궤리전비탑본(關里全碑搨本)을 주었다고 하였다.¹⁷⁾ 황작자의 이 호의는 이유원이 한(漢)대의 비문을 고증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임진년에 한나라 때의 비석 한 통을 손으로 모사한 적 있는데 이는 모두 윤오운(尹五耘)공이 살펴서 정한 것이다. 그 속에 “선민잔비(先民殘碑)”라는 것이 있었는데 발(跋)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연행 시에 한(漢)의 여러 비석 탑본을 얻었다. 모두 관지(款識)가 있었는데 이것만 홀로 없으므로 비석의 내용에 있는 글을 따서 억지로 ‘선민잔비’라고 이름을 붙였다.” 정유년에 외삼촌이 연경에 갔을 때 황작자라는 자가 궤리전비탑본(贈關里全碑搨本)을 주었다. 이듬해 외삼촌이 나에게 그것을 교정하게 하였는데 홍침(紅籤)에 목으로 쓴 글씨들이 모두 내가 보았던 것들이고 처음 보는 것이 없었다. 그 속에 공홍비(孔宏碑) 한 편이 있어서 급히 꺼내어 펼쳐보니 오운공이 억지로 “선민잔비”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었는데 중국인들이 어떤 근거로 제목을 붙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운공이 얻어왔을 때는 이 홍침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번의 것에만 있는 것

15) 黃爵滋, 『仙屏書屋初集詩後錄』 권2, <寄題朝鮮趙心庵臨江亭子>, “海上飛鴻恰送音, 碧天如洗悟詩心. 一亭似此乾坤大, 兩地因之魂夢深. 朝市歸來羨休沐, 湖山倚處動高吟. 雲橫側嶺斜欹帽, 月帶長波碎盞金. 鸞鶴十洲僊繡綉, 魚龍三島氣森沉. 一從石室丹霞到, 猶傍金華曉日臨. 黃海重開持節去, 綠江定憶隔年尋. 相逢絕似邢兼尹, 不見空憐商與參. 淡淡春生草際際, 聲聲秋在閣梧陰. 憑君莫負平泉好, 肯把新詞譜玉琴.”

16) 趙斗淳, 『心庵遺稿』 권6, <宿載寧, 用黃樹齋便面韻>

17) 李裕元, 『嘉梧藥略』, 책13, <漢孔宏碑辨>, “丁酉, 內舅入燕. 有黃爵滋者, 贈關里全碑搨本.”

일까? 아아, 동방은 궁벽한 곳이라 고적(古跡)을 널리 찾지 못하였다. 중국인들은 예서를 몰라도 여전히 고증할 수가 있으니 오운공이 이 이름을 몰랐던 것은 이상할 것이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다행히 내가 정하게 되어 공홍(孔宏)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 예서는 주(周), 진(秦) 나라에서 기원하였는데 더하여 우리 동방에서도 얻게 된 것일까?¹⁸⁾

이유원은 예서에 매우 뛰어났는데 『임하필기(林下筆記)』 권4의 <금해석묵편(金薤石墨編)>에는 <비갈지속(碑碣之屬)> 다섯 편이 있어 비석에 대한 그의 조예를 알 수 있게 한다. 윤오운의 생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이유원은 『임하필기』에서 윤오운에 대해 두 번이나 언급하였는데 조선에서는 오직 윤오운만이 예서에 능하여 서한의 법을 깊이 얻었으며 그 이후에는 맥을 이은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위의 글은 이유원이 황작자가 준 킬리전비답본에 근거하여 윤오운이 고증하지 못했던 공홍비의 이름을 알게 된 경과를 말한 것이다. 위의 글을 통해 조선의 문인들에 대한 황작자의 호의와 그것이 조선의 고증학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또 조선 문인이 황작자에게서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금석(金石)에 대해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들이 단순한 선물 교환과 시문 창화에만 주력한 것이 아니라 학술교류도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한중 문인들 사이에 학술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공동의 관심사와 서로의 학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가능했을 것이므로 이는 조선 문인들의 학문이 청나라에서 인정을 받았음을 말해 준다.

18) 李裕元, 『嘉梧叢略』 책12, <漢孔宏碑辨>, “余在壬辰, 手摹漢碑一統, 而皆尹五耘公所審定者也。中有‘先民殘碑’者, 且有跋語曰, ‘燕行, 得漢諸家碑。并有款識, 至此獨無。取碑中語, 強名之曰先民殘碑。’云。丁酉, 內舅入燕, 有黃爵滋者, 贈闕里全碑搨本。翌年, 內舅使余訂之。紅簽墨題, 皆余過眼, 別無初閱者。中有孔宏碑一本。余忙手披舒, 乃五耘公之所強名先民殘碑者也。不審華人有何攷據而題之耶。然則前日五耘公之求來也, 胡無此簽, 獨於今而有之耶? 噫, 東方僻處, 未得廣搜古跡, 華人雖不解隸法, 優有可證。其五耘公之不識此名, 或無怪矣。然至今日, 適使余定之, 而幸傳孔宏之名, 隸書周秦之淵源, 俾得之於吾東也歟?”

4. 결론

이상으로 청조 문인 황작자와 19세기 조선의 인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황작자는 뛰어난 문인이기도 했지만 중국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행적과 금연 주장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문인으로서의 면모는 오히려 간과된 측면이 있다. 황작자의 정치 행보에 대한 조선인들의 관심은 주로 그가 청나라의 부패상, 특히 양식 창고의 쌀 문제를 거론한 것과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변법을 실행하자는 주장을 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당시 황작자가 청나라 조정과 민간에서 주목을 받았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당시의 조선 역시 환곡문제 등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 사신들은 청나라의 부정부패 문제와 개혁 주장에 대해 주목하고 그 속에서 조선이 직면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가능성을 모색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황작자의 이름과 금연운동, 혹은 영국의 동향을 연관시켜 거론한 기록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조선인들이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거나 혹은 조선인들이 중국의 상황을 조선의 운명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였을 수도 있다.

황작자와 교류한 조선의 문인들은 황작자의 정치 행보보다는 주로 그의 문인의 면모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조선의 고위 관료로서 정사의 신분으로 사행에 참여하였으나 그 역시 사적인 문인의 입장에서 황작자와 교류하였다. 그 이후의 관료들이나 역관 역시 대부분 문인의 입장에서 주로 문화적인 교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황작자는 조선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적극적인 문화적 교류를 지향하였던 인물로, 그와 조선 문인들의 교류는 당시의 한중 관계와 문화적 교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런 교류가 당시의 국제 정세나 국가 정치에 대한 논의와 교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李尙迪, 『恩誦堂集』, 한국문집총간 312.

李裕元, 『嘉梧藁略』.

趙斗淳, 『心庵遺稿』.

『日省錄』.

黃爵滋, 『仙屏書屋初集詩後錄』, 산동대 도서관 소장본.

趙爾巽, 『淸史稿』.

2. 저서

이춘희, 『(19世紀) 韓·中 文學交流 : 李尙迪를 중심으로』, 새문사, 2009.

3. 논문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사론』
21, 1989, 237~315면.

이춘희, 『藕船 李尙迪과 晩淸 文人의 文學交流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溫兆海, 『朝鮮詩人李尙迪與淸代“江亭文人”雅集』, 『延邊教育學院學報』, 2012年 10
月, 第26卷 第5期, 4~7면.

Qing Dynasty scholar Huang Juezi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Joseon in 19th Century

Jin, Hong-Mei

Huang Juezi is a famous statesman and scholar in the Qing Dynasty of China. He urged for the elimination of corruption and prohibiting opium. In China, his upright character and bold counsel earned great reputation for him. Huang Juezi was willing to make friends. At that time he made a lot of Joseon scholars friends since he showed initiative and positive attitude.

During 1834-1846, the Joseon diplomatic corps returning from Qing reported to the throne. In the Huang Juezi's In Joseon envoys' reports, they concentrated on issues such as Qing government's attitude towards elimination of corruption, Han and Manchu treatment etc. However no mention of Huang Juezi's opinions on prohibiting opium and his role in the Opium War.

There were many Joseon literati who made friends with Huang Juezi. This paper main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ang Juezi and the Joseon literati in 19th century, like high office Huang Juezi showed his collection to Joseon literati and asked them to give some recommendations. He also gave the *Takbonto* to them as a present. When he held a poetry, Huang Juezi and the Joseon literati wrote poems back and forth to each other. Huang Juezi had a strong friendship with The communication between Joseon literati and Huang Juezi was focused on culture. They valued the appearance of each other as a literati.

keywords: Huang Juezi, 19th century, Joseon scholars, Joe Dusun.

접수일자: 2016. 9. 30. 심사기간: 2016. 10. 1.~2016. 11. 10. 게재결정: 2016. 11. 10.
